

청년「월간 양계」에 고하는 글



김철영
천호부회장 영업부

먼저 19년이라는 세월을 양계인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노력해 온 (월) 양계협회 모든 분들께 양계인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린다.

현재 우리 양계의 현주소가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모든 양계인들이 단합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음은 말한 나위도 없다. 또한 국민의 의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양계산물의 소비는 급증해야 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소비홍보 활동의 미비와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가 큰 불이익을 보면서 현재 청년 양계업계는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.

현실을 직시해 보자면 해야 될

과제들이 산더미같이 많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우리 양계업계가 아닌가 생각된다.

“Step by step”

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높은 산정을 향해 한 발 한 발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.

과거에 못다한 일들을 해야 하고 과거의 선배 양계인들이 지녔던 투혼을 길이 보존해야 하며, 이제는 청년의 날카로운 이성과 불타는 정열로 세계속의 양계인이 되어야 할 때다.

지금 우리는 고여서 썩어가는 물(水)이어서는 안된다. 살아서 움직이는 끊임없이 샘솟는 활수(活水)이어야 한다.

진심으로 「월간 양계」 창간 19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이 거듭나길 빈다.

양계